

보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 검색 시스템

국내·외 학술자료가 모두 여기에



학술 연구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하물며 국가차원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정리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내 모든 도서관이 네트워크되고 자료수집에 용이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런 제반 조건들이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탄생, 최근에는 해외박사학위논문 원문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

고, 이를 복사에 배달해 주게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사서비스의 경우는 시일이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그 외 국내 84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14만여건의 논문에 대한 원문을 다운로드 받고 석, 박사 학위 논문도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외박사학위논문 원문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복사의 권위있는 대학 평가기관에서 선정한 각 학문 분야별로 상위 순위에 링크된 박사학위논문들만을 선행, 철학, 법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 의학, 유전학 등 24개 학문분야의 1999년 이후 최신논문 위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은 약 2만원 정도다.

이에 대해 홍보담당 김진숙씨는 "자료를 구할 때 국립도서관, 도서관 등 여러가지 다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한다. 이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의 학술연구 지원 및 해외 학위논문 필수 비용의 절감을 위해 기획된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차원에서도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학술

문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화실(02-3488-6375)
http://www.keris.or.kr

만나보기-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서상영

“경쟁력 있는 연구·대학 위해 힘쓸 터”



서상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정보제공 서비스, 연구자들의 활동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학술연구나 대학의 경쟁력은 종사자의 학자력이 최신허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이용하는가에 상당부분이 달려 있다. 이런 것들을 국가차원에서 지원, 제공하는 것은 학술학술원이 충분해지는 풍토에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한다.

모든 대학도서관과 네트워크를 확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없는지

이 작업은 약 2년여에 걸쳐 준비 시행하는 것인데, 물론 초기에 몇몇 대학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아마도 자료는 그 대학의 고유재산이라는 생각이 컸던 탓일 것이다.

또한 주어진 예산내에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의 도서관들을 만들고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 목표는 모든 정보, 자료의 협력과 공존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의 연구 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학계의 협력과 공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흔히 외국학의 최신 논문을 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드는 노력과 돈을 따져보면 쉽게 대답이 나올 것이다. 이는 단지 개인의 시간 부족이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를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본 사명방향을 목표는 모든 정보, 자료의 협력과 공존이다.

이런 모든 활동들의 최대 수혜자는 아마 대학생, 대학원생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풍토를 열어갔으면 한다. 학교에서는 지도교수의 지원과 국가차원에서 더 폭넓은 정보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두가지 요소가 결합된다면 대학생들이 상당한 학업적 진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료의 범람은 오히려 무질한 카피문화도 불러올 수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연구하는 주체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기에 그들의 지적 욕구를 말한다.

소기회 - '글로벌'을 다시 본다② 동양고전 독해

자유로운 교양 함양의 장

우리학교에는 각 나라의 생활문화, 정치, 지역학 등을 논하는 '글로벌'이 있고 각 과별로 17개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과의 대인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보에서는 학술논문 합성회의 일환으로 3회에 걸쳐 우리학교 글로벌에 대한 소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매일 마지막 월요일 오후,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는 남양향 북소리로 한시를 읽고 논어를 해독하는 데 열중한 사람들이 있다. '동양고전 독해' 글로벌을 회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영어과, 일본어과 등 전공을 망라한 20여명의 교수들로 이루어진 '동양고전독해' 팀은 지난 98년 6월부터 시작,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우리 학문의 깊이가 되는 동양의 고전을 이해해 보자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여

러 교수님들이 재외하여 시작하게 됐다"며 "학문 발표의 성격이라기보다 교양을 넓히고 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모임의 성격을 설명하는 유성준(중국어) 교수는 이 모임의 회장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동양고전독해 팀은 두로, 유병환(중국) 교수들의 시를 해독하고 느낌을 나누고, 논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한달에 한번씩 진행되던 것이 쌓여 50여편의 한시를 해독하고 논어를 5번의 3월도 공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민(정치외교) 교수는 "서양사상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동양의 고전을 배우면서 두 사상이 조화를 이루고 풍부해지는 측면이 크다"고 전한다.

주제가 전문적이기보다 '교양'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 참가하는 교수들도 있을 만큼 호응이 크다. 지난날 30명(월) 정기모임의 경우 자리가 없어 앉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다.

이처럼 이 모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로 참여자들은 두 가지 정도를 꼽는다. 첫째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사에 담긴 내용, 사상에 대한 공감을 형성해 공동으로 토론할 수 있고, 둘째는 성원의 교육사상, 생활지식들을 배우면서 간접적으로 각자의 학문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초창기부터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지수(법학)교수는 "주어진 강의 외에도 함께 모여 동양고전부터 근대사까지 한국의 뿌리를 논할 수 있는 공간은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 본연의 역할에도 걸맞는 것 같다"고 전한다.

앞으로 3년여동안 해 온 토론사업의 성과로 문장을 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동양고전 독해글로벌팀은 학술모임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대성당과 교양강좌를 확보하고 있다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학술부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

0... 김대중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과의 스캔들'을 늘리겠다는 기조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료는 "대통령의 일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에게 다가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반면,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대우 캐리어 하장갑에 노조원까지 경찰차 안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뜻은 '잘 안 듣는 놈은 다가서기 귀찮겠다'는 뜻이었나 보다.

(웃)

0... 얼마전 호화공로를 쳐서 국민들에게 온갖 꾸밈을 들었던 김중환씨가 며칠 못 가 박세리랑 또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뉴스가 보도되고 거의 폭발적으로 시청자들의 항의가 들어왔는데, 우리 크로나를 그 이유를 알아보니 '너무 어두운 나라'라는 뜻을 부여없이 함부로 지내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엠바한 코디나 프로그래밍 더 못했냐'는 코디나와 '다들 골프 상대자는 쇼맨십이 없을까?'라는 제보전화까지 받았는데...

(웃)



0...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15일 인 스승의날에 인사추경하는 초등학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선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자는 것이란다.

크로나를 이 사설을 듣고는 '임시추경령을 내리고 해서 어느 부모가 선물을 준비하지 않을 것일까. 학부모가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받지 않을 교사가 어딴단 말인가?'하며 한탄을 외쳐들었다. 스승의 날 임시추경정책의 참맛을 말하는데...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더욱 좋은 선물을 사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 (SK)

스승의 날 추경의 진의

학술부

스칸디나비아 학회 '세계화와 스칸디나비아의 최근 변화' 세미나 개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주최의 제4회 학술대회가 오는 12일(토) 오후 1시 10분부터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열렸다.

'세계화와 스칸디나비아의 최근 변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1부(시화)와 2부(어문)로 나누어져 진행됐다. 1부에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변화'와 2부에는 발표되고, 2부에는 '북인 사회의 세계'와 1안이 발표됐다.

한국에서에서는 스칸디나비아어와 번역(서양어)학자, 김성현, 스벤 올손(Sven Olaf Olsson)교수 등이 참석했다. 그 외 타대학의 여러 발표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약 4시간에 걸친 토론을 펼쳤다.

한국 마크 트웨인 학회, 추계 정기 학술 발표회 개최

한국 마크트웨인 학회는 12일(토) 시청각교육원 세미나실에서 '2001년도 추계 정기 학술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발표와 토론 및 정기총회로 이루어졌다. 이날 발표 주제는 '트웨인의 종교관', '트웨인의 안티오이디우스', '마크트웨인의 미국'이었으며, 발표 후에는 토론회와 정기총회가 차례로 진행됐다.

비문집입니다

지난 78호 4면 B-6쪽통원선과 발행방향
통원선 기종 신원로 교수 발표내용 발문의
'인간가족'을 '인간가족'으로 바로잡습니다

외대학보

비문기철판

왕 산 골

0월입니다

- 사월문화회가 봄시화전을 엽니다.
- 때: 5월 14일(월)-18일(금)
- 곳: 학생회관 1층 전시실

(사월문화회)

- 5.18집 목요일영화제
(파라사지) 미국의 파나마항공을 소재로 한 충격적 실화
- 때: 5월 17일(목) 1:30/3:30/6:00
- 곳: 후북관 4층 소극장

(빛모습)

- 향기리학회(광기필름)정기영화제
- 때: 5월 18일(금)

이 문 벌

0월입니다

- 외대 바둑단 '외대 명인전'
- 때: 5월 22일 3시부터
- 곳: 대학원 강당 (6105)
- 참가비: 무료
- 상금: 10만원

(외대 바둑단)

- 공주 사대부고 동문회
- 때: 5월 17일(목) 오후 5시
- 곳: 노인정
- 001상은 2000원 4월과 새내기는 민원

(공주 사대부고 동문회)

- 도전 골든벨!
- 때: 5월 24일(목)
- 곳: 노인정
- 참가신청: 각 분과장님 또는 961-4488(동원실) 또는 http://hufidongnu.hibone.com의 동원

제17회 FBS 가요제

동물왕은

왕은 마이클 조던

노래왕은

FBS 가요제

리 소식 게시판에 이름,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접수는 5월 17일 까지

(동아리연합회)

- 청암 공부방 후원 주점
- 때: 2001년 5월 23일-25일
- 곳: 한국외대 후문 앞 유틸터
- 후원: 청암 공부방 과 외대 사범대학학회

(사범대학학회)

- 찾습니다
- 가방 찾이로 붉은 광장엔 잔디밭 나무위에 있던 아이런 녹색 가방이 없어졌어요
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니 꼭 찾아주세요
문의는 018-623-9995

(가방 찾이는)

- 예선일시: 2001년 5월 18일(토) 오후 1시
- 예선장소: 교양관 301호
- 문 의: 031-330-4138, 4597
- 지 점: 약 20명, 참가비 10,000원
- 참가대상: 서울·경상지역 대학생
- 시상내역: 최우수상 70만원과 상패
우수상 30만원과 상패
장려 15만원 상패

*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252 외대학보

미리 가보기 - 세번째 인터미스코리아 대회

남과 여, 직업의 구분은 원래 없었어

여학생 축구단. 남자 간호대생. 여자 경찰 특공대. 남자 유치원 교사 지망생...

세상 통념으로만 이들을 본다면 조금은 이상하고, 남과 구별지어져 '너희'라고 느껴지는 사람일 것이다. 연령, 성별, 하늘이 따로 걸음도 천차만별한 이들이 오는 19일(토) 정동 A&C에서 페미니스트 제13회 인터(남)과 여성문화에 숭고한 공적으로 주축하여 열리는 '인터미스코리아 대회' 출진자들이기도 하다.

인터미스코리아대회는 여성을 수화시켜 무대에 올리는 비인간적인 미안대회를 대체할 '대안적 미안대회'로 지난 99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첫인상' 귀엽고 개성이 강하며 남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 얼굴은 크지 않아야 하며 말할 때나 웃을 때 잇몸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미스코리아 참가기준- 얼굴 전체부분(30점), 위와 심사기준처럼 미스코리아 대회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획일화, 표준화 시키고 눈요기감으로 쓰인 성을 상품화 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단지 여성문화를 위한 것이 아닌 점차 많은 전염병을 공유하고 있고있다. 특히 출산자 여자 전원을 모두 수형복을 입혀서 몸매를 가려주는 매끼고 '바리보'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점 등은 크게 비판을 받는다.

이런 미스코리아대회에 대한 문제제기로 '안티'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인터미스코리아대회라는 그 첫수기 거듭할수록 단지 미스코리아대회를 반대하는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여성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첫 번째 대회인 99년에는 미미대회 자체에, 이듬해에는 숫자로 대변되는 여성들의 몸매 싸이징에 '빈자'를 걸었다면 세



▲ 제13회 인터미스코리아 대회 참가자

번째 맞는 올해는 '직업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가치로써 남녀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허물러뜨리기를 시도한다.

미안대회에 대한 반격을 출진연으로 보여줄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연합공동체 'I WILL', 성별에 따른 직업의 금지구역에 다루게 될 남자 간호대생 이승로(삼육간호보건대), 여성복 패션 모델 이태하, '홍부' 처의 호적제 습격사건 이란 풍자극을 공연할 호주제제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종교의 성차별을 다룬 풍자뮤지컬 '시스터'를 공연할 극단 해반도, '여자가 대통령'이라는 가상연설에 공모한 여대생들 등 10여개 3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그 외에도 여경공공의 무술소, 신상중학교 여자

축구팀, 여성직업 윤전자 모노드라마, 보디페인팅소, '여성직업 변신사' 다채로운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름다움은 저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가치 속에서 나오며 그 아름다움에 대해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인터 미스코리아대회는 이야기한다. 내외 보여줄 수 있고, 내외의 향기로 가능한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바로 우리가 모두 미스코리아이다.
 때: 5월 19일(토) 늦은 5시
 곳: 정동 A&C
 입장권: 1000원
 문의: 02-708-4555 / http://antimk.gazdo.com
 유희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만나보기 - 인터미스코리아 대회 참가자 이승로(삼육간호보건대)군

'백의의 천사', '나이트메어' 등으로 불리는 간호사.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머릿속에 그려보면 하얀 가운을 입고 간호모를 머리에 시뮬러 올려 쓴 여성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떠올린다. 다정다감함, 친절함, 무한한 희생심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톤톤하고 건강한 남성이 도전했다.

'직업의 경계를 넘어서' 인터미스코리아대회의 컨셉을 들고는 친구들이 '이건 바로 너를 위한 거야'라고 힘껏 추천해주어서 참가하게 되었다는 남자 간호대생 이승로(삼육간호보건대·99)군. 그는 귀걸이를 하고 백색복을 머리로 자신 있게 다는 활기 넘치는 젊은이였다.

보통 이군이 간호학과에 다닌다는 것을 밝히면 '남자간호대생이라고'라는 잘못 들었나 싶은 반응 혹은 웃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웃는 것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 인식, 고정관념 속에 성역할이 그림을 자유롭지 못했잖아! 오히려 안타까울 뿐! 이리해서 자신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최종목표는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싶은 것",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나 스스로의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간호학과를 선택한 것은 대입원서를 쓸 무렵, 전문직업인 직업을 빨리 갖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현실'상의 이유가 가장 컸다. "사실 사회적 인식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 엄청 좋았었다. 아니면 제이였을지 모르겠다"고 웃는 그는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조금은 자유로운 편처럼 보였다.

사실 남자 간호사는 없지 않다. 남자 간호사와 하면 정신병원에서 발작환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니면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나오는 표장호사를 떠올린다. "시트콤이기에 성격을 극단적으로 표현했긴 하지만, 소심하고 여성스러운 남자 간호사의 이미지로, 간호사라는 직업엔



남성이 어울리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그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남자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나아가 이것은 간호사와 의사 사이의 고정관념, 위계질서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 주목한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여성의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배워왔고, 또한 의사와 간호사는 수직적 관계로 이해되어왔다. "남자가 무슨 간호사냐"라는 물음에는 상에 관한 고정관념 말고도 다른 것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명령을 하는 것, 그러니 남자가 '하늘'의 사를, 여자는 '땅'인 간호사가 어울린다는 것',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시각이 들어갔다. "내가 직업하는 이유는 그런 여자의 직업에 남자인 내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인터미스코리아대회를 통해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요소를 너무나 행복하다"며 그는 앞으로 자신이 진정한 남자 간호사의 상을 그렸다고도 포부를 밝혔다.

유희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문학단신

서울

서대, 벼룩시장 물건 모으기

서양에서 학생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8일(목)까지 4일간 대동계 기간에 열릴 '환경사랑 벼룩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물건을 모은다.

정말 훌륭한 물건인데 딱히 내게는 필요 없는 것, 실용성이 너무 높아서 버려지니 아까운 물건, 한화기만 쓰고 책꽂이에 놓아놓은 교양서적들을 본관 1층 서양어대 학생회실로 가져가면 된다.

또한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으며, 본인의 재화로 직접 물건 판매가 지급된다고 한다. 문의·서양어대 학생회실(961-4065)

미술동아리 그림촌, 외대미전 열려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토)까지 6일간 소문 동장안 전시실에서 미술동아리 '그림촌'의 주최로 '외대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그림은 회원들이 직접 그린 유화, 수채화, 판화, 이크립화, 색연필화, 조소 등 25여점이 전시된다. 또한 독일어과 김광요 교수님의 유화 3점도 한조작품으로 전시 예정이다.



공연안내

5·5 인권영화제

기울에 열렸던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인권영화제가 봄으로 공식 조정하여 오는 18일부터 열린다. '표현의 자유'의 신장과 '인권교육'을 몸소 실천했던 인권영화제의 그 역사 번째, 5·5 인권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인권영화제의 지난 뜻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인권영화제의 미래를 모색하려고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추천하는 세계 인권영화 명작과 인기작을 모은 '다시 보는 명작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과 인권을 다룬 '마슈푸카', 인권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모음인 해나' 등이 무료로 상영된다.

때: 5월 18일~22일
 곳: 광화문 이트규점(홍익생명 지하)
 문의: 02-741-5363
 http://sarang.org.kr

소개 - EBS '정문영의 책으로 읽는 세상'

이제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리라



책은 읽는다.
 종이 위에 베풀린 글씨로 채워져 있는 것에서 작은 깨달음, 감동을 얻는다면 책은 그 본인의 역할을 다한 것. 그러나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다. 책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자아의 목소리, 말씨, 책에 나온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짐, 그

리고 내 생각과 달리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 등... '읽기'만 한 책과 대화하고 싶은 욕심은 문학의 본질이다.
 지난 해 12월 '정문영의 책으로 읽는 세상'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1시30분이 본격적인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표방하며 첫 선을 보였

다. 얼마 전 봄 개편을 맞이해서 시간을 10분간 늘리며 조금씩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독서 프로그램이 전무했던 현실 속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우수 도서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작가와의 무료 성 대담을 시도, 독서프로그램의 새 장을 열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술거뜰게 돌아가는 인스턴트 시대에 책만이 가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와 정보가 있다"고 말하는 류현이 PD(대행정)와 플·82 박씨는 "책을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책 속의 담겨진 메시지를 끄집어 내어 그것을 통해 동시대의 시대정신, 사회현상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고 재차의도를 밝힌다.

한국의 지식인 아티스트 가는(현대한국의 사상조를 윤전자), 빨리 뛰면서 느끼게 사는 지혜(자전거 여행-김종), 소설로 그린 우리 농촌의 지화상(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이문구), 일과 가정 절충의 길은 없는가(정글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는 조선회)등 7편까지 방송 한 목록을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이 문학프로그램으로만의 성격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교수, 문학담당자,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책 선정위원회에서 책을 선정하고 그것을 방송 프로그램과 적당하게 준비하는 기획단계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 "논점을 가지고 일정 수준에 이르는 책이라면 베스트셀러, 스타디얼라, 고전을 가리지 않고 토론의 주제로 삼겠다"며, "소재에 맞게 다양한 형식적 실험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5월 한달에는 '90년대 이후 민족의 애환과 시대정신을 담은' 소설 4편을 집중 조명한다. 대표작으로 선정된 소설은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80년대)', 이광준의 '당신들의 천국(70년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80년대)', 박완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90년대)', '이 세 작품을 통해 시대별 인문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의 모습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6월에는 '6·25 한국전쟁이 갖는 의미' 등 시의적 맞는 주제들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방송분은 EBS홈페이지에서 VOD로도 볼 수 있다.

유희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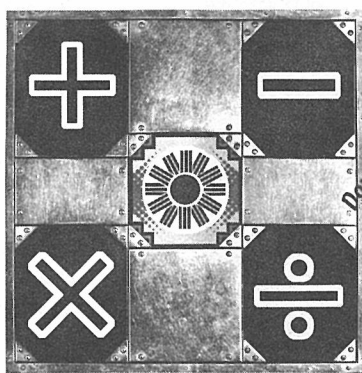


www.idongbu.com

Play Your Dream!

나의 화려한 개인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업-당신의 꿈을 소중히 하는 동부화재가 있습니다!

단순한 직장인이 아닌 자기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소중히 여기고 지원해줄 수 있는 기업환경 역시 중요합니다.
 개인의 꿈과 이상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회사,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있는 회사,
 여러분의 미래에 빛을 더하는 기업-동부화재가 있습니다.



Dong-bu Dong-bu Revolution

- 강력한 기업경영에 투명성을 더했습니다
- 자선, 학원 등의 편견을 깨웠습니다
- 노력과 재능에 대한 보상은 공이 됩니다
- 회사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러시아대륙횡단가 -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②

마흔다섯 날들, 우리가 정말 탐험을 했던 것일까?

우리가 과연 어떤 45일을
탐험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하바롭스크에서 울란우데로 떠날 때, 우리는 또 한번의 문제에 봉착했다. 여태까지의 탐험내용과 디지털 촬영을 저장해오던 노트북이 수리가 늦어져서 수리할 수 없었다. 결국, 한 명이 남아서 노트북을 수리하고 나머지 4명이 열차에 올랐다. 앞으로 54시간을 기차에서 보내야만, 울란우데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영적 나뉘어져서 여행을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시베리아의 보배라 불리는 타이가 지대로 다가가고 있을 수 있었다.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끝없이 펼쳐지는 울창한 나무숲들... 탐험에 지친 우리들에게는 더 할 나위없는 휴식시간이고, 림 앞의 더기로는 광활한 시베리아를 바라보면, 같이 여행하는 러시아 사람들과 웃고 즐기면서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이 회복됨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기차는 시베리아의 중심이자 세계 최대의 담수호인 바이칼호수가 있는 울란우데에 도착했다. 우리는 기차에서 내려자마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강추위에 주눅이 들어버렸다.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는 정말이지 뱃속까지 시원 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시베리아는 우리를 맞이하였다.

이 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추위는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했다. 뉴스에서는 시베리아의 이상기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추위를 이기지 못해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말도 전해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오게된 이 시베리아 횡단인데, 우리는 조금도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추위와 만주에도 임정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차를 렌트해서 리마



코의 수도원인 '다' 산을 촬영하기로 했다. 숙소에서 나올 때 본 우도는 -40도이지만, 바람이 몹시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60~70가까이 될 거라고 운전자 알렉세이는 말했다. 드디어 다산에 도착했다. 부랴트족은 특이하게도 라마교를 믿는다. 그리고 세계 라마교의 총 본산이 바로 이곳 울란우데에 있는 것이다. 전혀 러시아 같지 않은 분위기를, 우리는 이 거대한 대륙 '러시아'의 또 다른 면을 만나고 있었다. 하지만, 역시 추위 때문에 촬영이 어려웠다. 경산시 같은, 2시간 정도는 느리게 촬영하던 디지털카메라도 배터리가 닳고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아예 전원이 나가버리고, 캠코더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장갑을 벗어버렸으므로 촬영하던 지형이 눈-순간적으로 손가락에 동상이 오고, 입김은 바로 바로 눈썹이나 머리에 붙어서 하얗게 얼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1시간을 쫓기듯 버티면서 모든 촬영을 마쳤다. 그리고 다음 행선지인 민속박물관으로 향하면서 서로 '박물관은 실내용, 견학을 가야' 하면서 위로를 했다. 하지만, 알렉세이가 데리고 간 민속박물관은 야외박물관이었다. 모든 것을 체험한 상태에서는 오기가 발작되니, 우리는 즉각살기로 그 곳에서 2시간여 동안 촬영을 하고, 알렉세이는 그런 우리들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면서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게 힘든 하루가 지나갔다.



한충련 이적규정 철회하라



배민균 9기 한충련대의원 (동충련 임시조직) 2001년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바람은 도무지 숨을 쉬지조차 버거웠다. 도무지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고는 우리는 서둘러 촬영장소에서 후퇴했다. 우리는 운전기사에게 좀더 안으로 들어가자 해서 바람이 좀 덜 부는 곳으로 갔다. 촬영을 하고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었지만, 겨울 날씨를 즐기는 러시아사람들을 만났다. 강추위 속에서의 낯시... 거대한 호수... 낯시... 우리는 이미 블라디보스톡의 바다와 아무르 강의 낯시들을 체험한 상태였다. 이런 마지막으로 거대한 바이칼 호수의 겨울 낯시를 경험하는 것이다. 겨울 낯시는 사탕 달렸다. 물론 구멍을 뚫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은 좀 달랐다. 구멍을 뚫고 작은 나뭇가지에 낚시줄을 매달고 얼음구멍에 살짝 걸쳐놓아서 일단은 작은 물고기를 잡고, 그것으로 큰 물고기를 잡는 형태였다. 거의 한시간이 흘렀고, 어떤 더 이상의 추위를 견디기에는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일단은 얼고자 했던 것은 일었다 싶어 우리는 후퇴했다. 물이면서, 서로를 못내 아쉬워하 지꾸만 뒤를 돌아보아만 했다. 그렇게 시베리아 횡단의 하이라이트 바이칼과 이별을 헤어야했다.

그곳에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아홉다섯 하면서 살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이 사는 모습 가운데 가장 추울때의 삶을 조금 경험한 것 뿐이다. 결국 탐험은 우리들의 무지에서 나온 오만함이었다.

울란우데를 뒤로하고 우리는 설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늘이 빛은 도시'라고 불렀던 이르쿠츠크에서 5일을. 하루에 러시아 경찰에게 몇이나 검문을 당해서 아주 불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4일을,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아카펠고르'라는 세계최고의 과학, 학술단지가 있는 노보시비리스크(개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해서 그 아카펠고르도에 관한 사전지식과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건물만 찍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에서 5일을,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이자, 사회주의 혁명으로 처형당한, 니콜라이 2세의 처형지가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비가 있는 예카테린부르크에서 5일을 보내고 드디어 우리는 모스크바로 왔다. 비행기로 9시간 걸리는 이곳을 우리는 한 알마리는 시간이 걸려서 도착했다. 시베리아의 여러 도시와 모스크바는 그 느낌부터 사뭇 다르다. 이미 모스크바는 유럽의 어느 선진도시와 다를 바없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TV,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 우리의 소식에 관심을 가진다는 소식을 듣고, 간단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그간의 여정을 물면서 지냈다. 그리고 다시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우리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였다. 페테르부르크는 제정러시아 시대중 프트르대 때부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제국의 수도로서, 그 도시의 아름다움은 어느 도시에 견주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 3월 4일의 페테르부르크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우리는 전체적인 겨울 시베리아 횡단의 마무리를 하였다. 각 도시를 거칠 때마다 그 도시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고, 그 결과 최종 모스크바에 외서는 순수한 지프만 300kg이 넘었다.

겨울시베리아는 훌륭으로 다나고 버거웠고, 광범한 하기도 금방 지칠 정도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힘들었다. 하지만, 자료 구입 또한 놓칠 수 없는 가장 커



다란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결국 이런 지로 때문에 우리는 2월 12일 한국으로 4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러시아경 활동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이번 45일을 과연 탐험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시베리아는 오지가 아니었고, 그 곳에서도 우리들 똑같은 사람들이 아홉다섯 하면서 살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사는 모습 중 가장 추울 때의 삶을 조금 경험한 것뿐이다. 결국 탐험은 우리들의 무지에서 나온 오만함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우린 광활한 유해지가 아날뿐더러, 이제 한국중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을 눈앞에 둔 세계의 경제,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를 무한한 가능성의 대륙을 온몸으로 경험한 것이다.

최원보 (동유럽·러시아어 96)



신나는 일! 우리나라 캐릭터에 복덩이가 굴러왔습니다. 둘리 이후 최대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업기토, 동상동상한 물매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어쉴로 마시미로, 그것의 미미마우스, 포켓몬즈 등의 미국, 일본 캐릭터에 당당히 맞서 우리의 것이 무언인지 모르는 불행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우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당한 등록금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학교, 그렇게 핑계를 대마다, 주저 않고 싶을 때마다 다시 나를 일어서게 해 준 것은 1만 2천 학우들의 얼굴들이었습니다.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 학교측의 제적방침 등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청사를 나오는 길,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한충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불법연행이 아니냐고 항변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1만 2천 학우들의 투표로 총학생회장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새내기들을 처음 만난 날, 그들에게 꼭 밝은 환顔を 물려주리라 약속했었는데... 학우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바라본던 반백의 눈망울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